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과 함께 순모임 자료입니다.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5/26)	다음 주(6/2)	6/9
기 도	주일오전예배	박철호 서리집사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주일오후예배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오숙현 성도
성경 봉독		최재욱 성도	오숙현 성도	이강진 서리집사
식사 준비		장윤경	이윤경 순	오숙현 순
정리		김윤기	오숙현 순	이강진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제6권 22호 2019.6.2.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	예 배 부 름	인	도	자
♣	기 원	인	도	자
♣	송 영	찬송가 6장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82장, 찬송가 270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19편 25-40절		최	재	욱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사 55:1-13		김	윤	기 목사
[특별한 초대]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531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현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박	철	호 서리집사
♣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하유미 성도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 1장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2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삼상 31:1-6
설 교:	사울의 끝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22주일

57문.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58문.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답: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 말씀 요약: 사 55:1-13, 특별한 초대

1.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1절).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값을 여호와와 종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라, 사라, 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는 뜻입니다(3-5절). 그것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래서 확실하며,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2.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죄로 인해 갈증과 배고픔을 얻게 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초월한 높은 생각과 길을 가지셨습니다(7-9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활히 여기시며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빨리 주께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우리가 속히 해야 할 일입니다(6절; 고후 6:2).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10,11절). 주님께 나아간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12,13절).

3.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과 같습니다(눅 14:15-24).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여하면 그 잔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와 같은 나라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값으로 인해 풍성한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베풀어지는 나라입니다. 그 초청을 받고 응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음을 듣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사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